

208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쉐트리 문학 모의고사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최고의 자기계발은 재수이다” 정도인것 같네요.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예고이스트 4월 모의고사 많이 기대해주세요. (5월이 될 수도)

문학 1~7쪽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표지를 넘기셔도 됩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르비 회원 여러분 국어강사 심찬우입니다. 2016년 8월 17일 오르비 클래스에서 인터넷 강의를 런칭합니다. 많이 망설였던 만큼 고민의 밤이 깊었음을 고백합니다. 대학에서 교직을 그만 두겠다고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가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전날 밤처럼 말입니다. 학원 강의를 처음 시작했던 겨울 혹독했던 그 겨울에 마주했던 잔인한 질문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왜 대학에 가야하는가?’ 대학에 와버린 사람으로서 무어라 답해야 ‘옳은’ 것인가? ‘지방대에 가면 인간 취급 못 받지 않는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잘 설명해야 ‘옳은’ 것인가? 할 말을 찾지 못해 그저 회피하고 말았습니다. ‘수능 이후에 다시 얘기하자’

하지만 그 해 수능이 끝나기 전 무심한 하늘은 대답할 기회를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웠던 한 송이의 꽃이 결국 피지 못하고 떨어져버린 것이지요. 고작 성적표에 적혀있는 별 볼일 없는 숫자 따위에 부모님과 갈등했고 친구들과 등을 돌렸으며 자신의 존재마저 회의했던 아이의 끝을 알 수 없는 좌절감 앞에 위로 한 마디 하지 못했던, 하나의 세계를 무심하게 외면해버린 부끄러운 어른이 여기 있습니다.

물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학교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요. 학원은 그 순기능을 다하고 있는 걸까요. 학교 선생님이 외면당하고 학원 강사에게만 열광하는 이 사회가 과연 정상일까요. 그렇다면 짓궂게 물어오는 질문들 그럼 학교로 가지 그랬냐고. 학교에 가서 다 바꾸지 그랬냐고.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구차한 변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재수생들을 품지 않는 이 교육, 입시로만 수렴될 수밖에 없는 이 교육이 너무 미웠습니다. ‘실패하는 자는 가차 없이 버려진다’ 제가 만난 지금 교육의 모습이었습니다. 변화를 주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더불어 가치 실현의 공간을 고민하던 중 우연히 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학원에서 일하고 계셨던 그분은 학원 속에 학교를 만들어 제가 꿈꾸던 이상을 실현하고 있으셨습니다. 학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구나 오르비에 계신 많은 강사분들처럼 학원에서도 고군분투 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고민 끝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왔고, 사교육에 만연해있는 수많은 편견, 시련과 맞서 싸우며 ‘교육’을 말해왔습니다.

오르비 회원 여러분 나는 학원 강사입니다. 잘 가르치고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은 ‘학원 강사’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원과 학원 강사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저’에게 기대하는 모든 것 부족한 능력이지만 미친 듯이 노력

해서, 매일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부응해 내겠습니다.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상승에 반드시 도움을 주겠습니다. 하지만 이에만 그치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대학 진학 ‘만’이 성공이라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명문대를 가야만 인간 취급 받는다고 가르치는 ‘못된 어른’이 아닌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대학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많음을 ‘나만큼 소중한 너’가 있음을 더불어 사는 것의 가치를 나 자신의 존재sms 그 무엇보다 소중함을 알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그리하여 혹독한 입시의 소용돌이 앞에서 희망을 말하고, 용기를 말하며 남을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스스로에게 지지 않는 법을, ‘진정한 의미’가 함께하는 그러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스타강사나 1타 강사가 누군지 저는 잘 알지도 못하고, 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학생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끝까지 응원하고, 혹여 실패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힘주어 격려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내세우고 자랑해야만 살아남는 이 살벌한 공간에서, 나를 포장하는 학력, 약력, 경력 등 모든 ‘레테르’들을 저부터 내려놓겠습니다. 그리하여 대학의 간판이나 강사의 이력 등을 앞세워 세속적인 가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닌, ‘심찬우’라는 존재, 정말 ‘나’라는 존재만으로 제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들을 직접 보여드리고 실현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매 강의에 열정을 다하고 매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한 명 한 명의 학생조차 헛되어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학원으로 나온 후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고난의 연속이 되겠지요. 솔직히 ‘이상주의’라고 비아냥대거나, 학원 강사는 그 자리에 머물라며 비난과 견제를 하는 목소리들이 있을까 봐 많이 겁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굴하지 않겠습니다. 매섭게 불어오는 바람에 굴복하여 조금이라도 초심을 잃고 방황하는 ‘못된 어른’이 된다면, 과감히 야단쳐 주십시오. 여러분의 호된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오르비 회원 여러분,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 왔습니다. 광활한 평야에 혈혈단신으로 섰지만, 제가 믿고 있는 가치와 신념을 이곳에서도 실현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 미약하나마 제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봅시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폭 넓고 깊은 이해”

2016. 08. 12.

국어강사 ‘심찬우’

- 심찬우, 「출사표」 -

1.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 자신의 선택과 태도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글을 쓰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다.
- ② 예상되는 비판적 시선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 ③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재 교육 시스템 및 사회적 현상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제기하고 있다.
- ④ 특정 인물과의 일화를 인용하여 자신이 지향하는 교육적 모델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신의 이력을 수사적으로 낮추는 방식을 통해, 외적 조건보다 본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2. 심판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 제자의 불행 앞에 무력했던 자신을 '부끄러운 어른'으로 규정하며, 이를 교육적 실천을 위한 도덕적 부채감으로 삼고 있다.
- ② '학원 속의 학교'라는 모델을 접한 후, 공간의 명칭보다 그 안에서 실현되는 '가치'의 본질이 교육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믿게 되었다.
- ③ 강사로서의 '레테르'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은, 권위를 부정하고 오직 강의의 진정성으로 평가받겠다는 의지이다.
- ④ 대학 진학을 넘어선 '소중한 가치'를 가르치겠다는 다짐은, 입시 성적 향상이라는 도구적 책무보다 진정한 교육 가치의 실현이 중요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 ⑤ '이상주의'에 대한 주변의 냉소적 반응을 예상하면서도 굴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가 사교육 시장의 지배적 논리와 충돌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실패하는 자는 가차 없이 버려진다'는 냉혹한 논리가 지배하며, 모든 가치가 입시라는 결과로 수렴되는 공간이다.
- ② ㉡은 타인을 이기는 기술을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지지 않는 법과 존재 가치를 깨닫는 과정을 포함한다.
- ③ ㉠에서의 '성적표의 숫자'는 학생의 실존적 세계를 대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관계를 단절시킨다.
- ④ ㉡을 실현하기 위해 화자는 '레테르'를 내려놓음을 통해 사교육 시장의 편견에 맞설 수 있는 힘을 확보하려 한다.
- ⑤ ㉠이 명문대 진학을 인간 대접의 척도로 삼는 '못된 어른'들의 세계라면, ㉡은 대학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가르치는 세계이다.

4. <보기>를 본 (가)의 화자가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스스로를 변명하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글의 요지가 뭔가요. 학원 강사가 공부를 가르치지 인성을 가르친다는 건가요. 그럼 인성을 가르치는 학원으로 가지죠. 학원 강사가 뭘 할 수 있다고 대한민국을 탓하고 사회를 욕하며, 어른이라는 것이 벼슬이라는 것만양 말을 하시네요. 결국은 내가 애들을 가르쳐서 지방대를 보내더라도 나를 탓하지 말라 이겁니까? 국어 강사답지 않은 기승전결이 없는 문장 구성에... 스스로를 변명하는 문장들을 뜻없이 나열만 해둔 것 같습니다.

- ① <보기>는 학원 강사의 레테르를 강조하며 학원 강사의 책무는 오로지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군.
- ② <보기>가 윗글을 '변명'이라 치부하는 것은, 시스템의 폭력에 희생된 '한 송이의 꽃'에 대해 필자가 느끼는 실존적 부채감과 성찰의 무게를 간과한 것이겠군.
- ③ <보기>가 '공부를 가르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입시 성적을 화폐처럼 교환하는 사교육의 시스템에 함몰되어 교육의 본질을 부정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보기>가 '지방대에 보내더라도 탓하지 말라'고 묻는 것은, '성적 상승에 대한 책무'를 외면하고 인격 교육만을 도피처로 삼으려 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 ⑤ <보기>가 '강사가 사회를 탓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교육의 문제를 개인의 성적 이슈로만 한정하여 교육이 지향해야 할 '사회적 순기능'에 대한 고민을 차단하는 행위겠군.

[5~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저는 타이핑이나 문서 작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급을 줄 때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되도록 더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 시급을 7,000원으로 정하고 아르바이트생이 10시간을 일했다면, 원래 금액인 7만 원보다 많은 8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제 형편이 좀 더 여유로울 때는 10만 원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은 7,000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자신의 논리에 의해 부당하게 낮게 책정된 금액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더 챙겨주려 노력합니다.

간혹 주변에서는 마티즈를 타고 다니는 저를 보며 "옷 좀 사라, 가방 좀 사라, 차 좀 바꿔라"라며 '패션 거지'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너 자신에게도 좀 투자하라"는 말도 듣지만, 저를 꾸미는 것보다 더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이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대중, 「최저임금을 논함」 -

(나)

본인 고1때 우리반에 췌수학황 있었음 ○○

야자때 췌수학만 푸는새긴데
르○ c단계도 고된 1도없이 1분컷 내고
책 찢어지도록 식 식 거리면서 남들 보란 듯이 동그라미 치는 새끼 있었는데

알고보니 미리 답지보고 외워놓고 퍼포먼스 보여주는 새끼였음
중간고사 수학 47점받고 왕따됨 병신 ㅋㅋ

- 작자 미상, 「본인 고1때 우리반에 '췌수학황' 있었음」 -

(다)

씨발 솔직히 너네 이거 80분안에 못 풀지 개새끼들이 인정해! 씨발 뭐 집중? 기출? 봉소? 6시기상? 매일 4시간 비문학? 다 좆까라 그래 씨발 이걸 아니잖아 이걸 돈 받고 가르치는게 되냐고 너네 강의가 진짜 수능에 도움이 되냐고 이러고 또 내년되면 국어 강의열고 집중해라 침착해라 이지랄할거야? 이번 수능국어가 특이케이스라고? 그럼 내년에도 이 정도면? 국어공부는 어떻게 해? 너네는 어떻게든 돈 벌려고 방법이 있다고 나만 믿으라고 하겠지. 내가 인강 풀커리타고 매일 비문학 2시간씩 7시에 일어나서 공부했어 공부하면서 국어는 기출이지.. 국어는 집중이지 다 내 노력이 부족한거지 생각으로 공부했어 근데 결과가 이거라고? 그냥 존나게 회의감이들어 존경하던 국어 강사들도 다 장사치로 보이고 이걸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는게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이런 시험이면 어떻게 공부해야하는데.. 씨발 알려줘 진짜 이게 노력, 공부로 극복이 되냐고 이걸 가르

칠수 있겠냐고

(위에 글은 비도덕적인 국어강사님들에게 한 말이고 말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그냥 수험생의 마음 그대로를 나타내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위 같은 강사와는 다른 존경하는 국어 강사님들 김동욱 김승리 유대중 박광일 심찬우 최인호(그리스문서)선생님 혹시 보신다면 캐스트로 알려주세요

선생님들은 다르시잖아요 돈 벌어 먹으려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포장하고 그런진 노력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하시면 안되잖아요 올 해 수능국어가 잘못된겁니까? 정말 국어강의가 도움이 됩니까? 올 해 하신 강의들이 이번 수능 수험장에서 제자에게 쓸모가 있었습니까? 재능이 아니고 노력이 맞습니까? 3등급은 영원히 3등급이 아니죠?? 매일 국어기출을보고 집중해서 풀면 가능한거죠? 이번 국어 시간안에 다 푸시고 맞으셨죠? 제발 맞다고해줘요 제발 노력이 부족한거라고 재능이 아니라고 이번시험이 심한거라고.. 열심히 할 자신 있어요 재수 삼수 사수 친구들 밖에서 이성친구랑 테이트하고 놀 때 어두컴컴한 독서실에서 서양의 과학관에 관한 인생에 도움도 안 되고 정보량 덩어리인 글들 읽을 수 있어요. 알아요 대학"수학능력"시험인거 그러면 제 "수학능력"은 딱 이 정도인가요.. 제 노력이 부족했겠죠? 그죠? 뒤쳐지고 많이 느리고 힘들어도 다 버틸수 있고 무섭지않아요 근데 무서운건요. 진짜 무서운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할 것이지 않을까? 난 태생부터 불가능하지 않을까? 내 유전자는 이미 틀렸나? 하는 의문이에요. 내가 지금 태양을 맨손으로 붙잡는게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믿는것 아닐까? 난 노력하지 않은 주제에 남을 탓하는것이지않을까? 난 '가능한' 사람인가..?

어느 시골 어두운 새벽에 앞이 시꺼먼 어둠을 헤치며 흙과 모래로 뒤덮인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터벅터벅 걷고있고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않는 칠흙같은 어둠뿐이에요 고개를 들어 올려 보면 까만 천에 노란 점을 수놓은 듯 하늘에는 빼곡히 박힌 노란 별들이 환하게 빛나지만 별들은 하늘에 있고 제 발은 땅에 붙어있네요.

- 용강, 「국어강사들 들어와라」 -

5.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윤리적 가치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수치나 비용을 언급하여 화자가 직면한 상황의 현실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이중성을 폭로하고 사회적 통념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신이 처한 현실이나 대상의 실체를 직시하며 느끼는 심리를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6.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자신의 논리에 의해 책정된 임금이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화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정해진 시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다.
- ③ 화자는 자신의 외양을 가꾸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실천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한다.
- ④ 화자는 주변의 비판을 수용하여 자신의 행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⑤ 화자는 개인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보상의 크기를 유동적으로 조절하여 지급하기도 한다.

7. (나)에 [췌수확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실제 역량보다 외부로 비치는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치중한 인물이다.
- ② 학습의 과정보다 결과물을 과시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주변의 인정을 갈구하였다.
- ③ 자신의 실제 역량보다 외부로 비치는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치중한 인물이다.
- ④ 정답지에 의존하여 습득한 정보를 내면화하였으나 그것이 실력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 ⑤ 허구적 자아를 유지하기 위한 기만적 행위가 실제 평가를 통해 무너지며 사회적 고립을 자초하였다.

8.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담요단 A의 주요 출몰 지역은 예쁜 스티디카페 (무릎)담요와 5색 볼펜, 5색 형광펜과 예쁜 플래너 그리고 아이패드, 애플펜슬, 노트북을 지참한다. 일단 공부 시작 전 알록달록하게 플래너 쓰고 사진 찍어서 공스타에 올리는데 1~2시간, 이후 필기 및 간식거리 세팅하고 공스타 올리는데 1시간을 쓴다. 이후 1시간 짹 공부하고나니 머리가 아프다.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유튜브에 접속해서 연고티비와 미미미누를 시청하며 다시 얼굴의지를 다잡는다.

- ① (나)의 화자는 <보기>와 같이 보여주기식 공부를 하는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나)의 화자는 <보기>와 같이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여 특정 대상을 비난하고 있다.
- ③ (나)의 “췌수확황”은 <보기>의 “담요단 A”와 달리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는 보여주고 있다.
- ④ <보기>의 “담요단 A는” (나)의 “췌수확황”과 같이 타인의 시선을 과학계 의식하는 존재이다.
- ⑤ (나)의 화자는 <보기>와 달리 특정 대상에게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9. (다)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사들을 장사치로 비하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은폐하고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방어 기제의 일부이다.
- ② '3등급은 영원히 3등급이 아니죠?'라는 질문은 의문을 극복하고 재도전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한 질문이다.
- ③ '태양을 맨손으로 붙잡는 것'과 자신의 노력을 동일시하는 것은 성취 불가능한 목표에 매몰되었던 과거의 맹목성에 대한 회의를 드러낸다.
- ④ '서양의 과학관' 지문을 정보량 덩어리로 규정한 것은, 수험생 시절 외적 변별력에 함몰된 수험 현실의 모순을 응시한 주체의 회의감을 드러낸다.
- ⑤ '별'과 '밭'의 거리감을 확인하는 것은 자아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는 성숙한 태도를 드러내는 행위이다.

10.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의 화자는 '노력'이라는 신화적 가치가 '수능'이라는 기술적 시스템에 의해 해체되는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 이때 화자가 내뱉는 비속어와 격앙된 어조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자신의 실존적 근거였던 '노력의 가용성'이 부정당한 데서 오는 형이상학적 공포의 표현이다. 특히 마지막 단락의 '별'과 '흙'의 대비는 초월적 이상을 갈망하면서도 물리적 현실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피투성(Thrownness)을 시각적으로 구조화한 비극적 장치다.

- ① 화자가 '제발 맞다고 해줘요'라고 반복하는 행위는 자신의 실존적 위기를 유예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군.
- ② '태양을 맨손으로 붙잡는 것'이라는 비유는 주체의 노력이 대상의 본질적 속성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자각하기 시작한 화자의 회의적 인식이 투영된 것이겠군.
- ③ '서양의 과학관'과 같은 정보량 덩어리를 '인생에 도움도 안된다'고 규정한 것은, 시스템이 요구하는 '수확능력'의 도구적 성격에서 기인한 것이겠군.
- ④ '별들은 하늘에 있고 제 밭은 땅에 붙어 있다'는 서술은, 이상적 가치에 도달하려는 주체의 의지가 객관적 현실의 물리적 한계에 의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음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⑤ '어두운 새벽'의 '비포장도로'를 걷는 행위는, 정형화된 방법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는군.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지방의 안 좋은 일반고를 졸업한 화자는 2020 수능을 망치고 인생을 멋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에 다른 아이들과 달리 재수를 결심한다.

이때는 내가 시대인재라는 학원의 존재를 몰라서 아빠의 추천으로 강남대성 기숙학원 의대관에 들어갔다. 겨우 점수에 맞더라. 그리하여 시작한 ㉠재수 남들과 벌어진 격차를 줄이려고 진짜 열심히 했다. 수업도 열심히 듣고 인강도 들으면서 공부하고 그곳엔 심야자습이랑게 있어서 일과 10시에 마치면 새벽 1시까지 자습할 수 있게 해주는데 매일매일 빠짐없이 자습하면서 살아갔다. 지금 여기서 다시보니까 정말 세상 좁은게 느껴지더라. 이때도 잘한다고 느꼈는데 더 큰 곳에서 보니까 정말 대단했어. 그런데 내 노력이 부족했던 걸까? 결국 또 실패했다. 어찌어찌 치대 지원했는데 안 되더라. 점수공개 봤을때 나랑 수학 한문제 차이 난 사람이 합격한거 보고 정말 한없이 울었던 것 같다. 결국 점수 맞춰서 대학 등록했어. 하지만 이때도 내 마음속에는 의대에 대한 열망이 남아있었어.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이제 그만한다고 대학 다니겠다고 하고 나 혼자만의 싸움을 시작했다. 이때가 한창 코로나가 심할 시기라서 대학이 썩다 비대면 수업이었는데 첫수업 들어보고 난 도저히 의대가 아닌 대학은 못다닐거 같아서 바로 다음부터 썩다 수강취소하고 ㉡학교반수 시작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내 친구들의 연락도 모두 무시한 채로 하루하루 외로운 싸움을 했다. 부모님한테 전화하면 학교 잘 다니고 있다고 하고 집은 거의 가지도 않고 자취방에서 혼자 스탠드키고 공부했던 것 같아. 이때 처음 대치동에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서 현장도 등록해서 다니고 했어. 평일에는 진짜 마음을 다잡고 공부만 하고 주말에는 버스타고 대치동가서 현장들었다. 강대k도 풀고 서바이벌도 풀면서 정신없이 살았지 처음으로 사실에서 100점이라는 점수도 맞아보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잘하고 싶었어. 조금만 더 열심히하자 조금만 더 잘하자 이런 생각으로 나를 더 불태웠던 것 같아. 이때가 진짜 주변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혼자서 준비할 때라 스트레스도 엄청 심하고 가족들한테 짜증도 엄청 부린거 같다. 심지어 탈모까지 얻어서 정말 힘들었어.

이 글을 쓰고 있다는걸 보면 알겠지만 결국 시험장에서 언매에 20분 쓰고 헤겔 딱딱뜨렸을때는 심장 쿵광쿵광 뛰는게 귀에 들리고 손도 떨리더라. 어찌어찌 넘기고 브레턴 지문 봤을때는 그냥 정신 놓은것 같다. 그래서 국어는 결국 1등급은 못받고 1컷보다 2점정도 낮은점수 받았다. 수학도 다맞은줄 알았는데 29번 계산실수 해서 96받고 그래도 겨우 수학으로 연세대 공대는 되더라. 지방대에서 시작해서 서성한 그리고 꿈꿔보지 못한 연세대까지 사람 욕심이랑게 자꾸 오르는걸 보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 주식이랑 코인하는 사람들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해서 부모님 몰래 학교 안다니고 공부했던거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올면서 진짜 한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한번 더하면 진짜 될 것 같다고 이제는 다르다고 하면서 이미 우

리누나는 입시 마치고 유학까지 갔다와서 남은 자식은 나 하나라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지원해 주셨다.

나도 그거에 보답하려고 했고 그리하여 내 ㉢사수가 시작됐어.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어서 사수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바로 공부 시작했어. 겨울방학에 현장 개강하는 첫 수업때부터 바로 등록해서 다녔지. 이때가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였을 거야. 지금도 이때의 대치동 느낌이 기억난다. 겨울 첫 개강하니깐 나도 여기에서 학교다니는 고3이 된 느낌이었어. 새로운 마음가짐과 설렘을 가지고 열심히 수업듣고 공부했었어. 그리고 시대인재 재종 처음 개강할때부터 바로 등록해서 다녔어. 재종같은 시스템은 재수 이후로 오랜만이라 새로운 공부환경에서 적응하며 내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며 살아왔던 거 같아. 매일매일 12시까지 남아서 공부했고 12시까지 하지 않은 날은 손에 꼽을 정도로 치열하게 살아왔다. 주말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공부했어. 그렇게 본 첫 6월 평가원 시험 내 인생에서 가장 잘본 시험이었어. 수학은 평가원 처음으로 100점이라는걸 받아보고 안되던 국어도 노력하니깐 백분위 100까지 나왔어. 이때 잘봐서 학원에서도 장학금 줘서 정말 너무 기뻐다. 진짜 올해는 이 길고 긴 싸움을 끝낼 수 있을거 같았어. 이때도 나는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더 잘하자는 생각 뿐이었다. 근데 막상 잠시 주춤하는 시기가 오더라. 그래서 9평은 생각만큼 잘보지 못했고 서바이벌 점수도 이때 잠시 주춤했던 것 같아.

[중략 부분의 줄거리] 화자는 결국 9평을 망한 이유가 증압감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극복하려 하지만 결국 실패하였고 수능을 망치게 되었다. 연세대 공대보다 더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등록도 안한 그가 받은 성적표는 서성한도 간담간담한 정도였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야 사수까지 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어. 친구는 물론이고 외모 피부 스물 초반 나이에 해볼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 모든걸 포기하고 수능이라는 목표 하나로만 몇년을 달려왔어. 남들과 다른 나를 꿈꾸며 살아왔지만 나도 결국 수능 망한 장수생이더라. 시험기간 동안 나를 사랑하지 못했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매질하면서 여기까지 온게 허탈하고 쓸쓸해. 올해 난 나의 모든걸 쏟아부었다고 자신할 수 있을만큼 열심히해서. 오히려 너무 낮은 성적을 받았음에도 현실부정하지 않고 받아드렸어. 겹지만 잘싸웠다라는 말이 이제는 이해가 간다. 앞으로 나는 내 삶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할지 고민해 보려고 해. 하고 싶고 배우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못해왔던 것들 운전면허도 따보고 토익도 한번 봐보고 해보고 싶었던 알바도 해보고 가고 싶은 여행도 가고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대학도 다니면서 멋있는 내가 되어보려고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느끼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삶이 아니라 나라의 사람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게 무엇인지 내가 바라는 삶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다른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위치속에 나를 두는게 아닌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 집중하면서 살아보려고.

이왕 쓰는 김에 하고 싶은 말도 쓸게. 이 글을 본다면 내가 누군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분이 이 글을 보신다면 꼭

하고 싶은 말이어서. 항상 저녁 늦은시간까지 자습하고 나오면 웃은 얼굴로 항상 맞이해 주셨던 선생님. 덕분에 힘들었던 수험생활 버티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홀로 지내고 있을 때 엄마같이 대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인사는 좋은 결과를 들고 마지막 인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고 싶었지만 결국은 마지막 인사를 남깁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가치를 지니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뵙고 말하고 싶었는데 얼굴 보면 울기만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저는 단지 스쳐가는 한 사람으로 남게 될지도 모르지만 저에게 있어서 당신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값진 인연입니다. 비록 지금은 여기서 헤어지게 되지만 만약 살면서 다시 마주칠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는 제가 먼저 당신을 알아보고 잡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읽어준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도 고맙단 말 해주고 싶어.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내 가족에게조차도 하지 못한 내 얘기였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시험 보고 원하는 결과를 얻은 친구들은 정말 축하해. 내가 원래 자존심이 썩고 이기적이어서 남들이 잘되는 걸 진심으로 기뻐해 준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남의 기쁨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하기로 마음먹은 친구들도 자신을 믿고 헤쳐나가길 바래. 난 아무리 노력하고 사설에서 좋은 점수 받아도, 해마다 가중되는 중압감을 이겨내고 실력을 발휘하기에는 모자란 그릇이었던 것 같아.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나봐. 너희는 자신을 믿고 꼭 원하는 바를 이루길 바랄게.

정말 끝이네요. 이로써 저의 긴 수험생활도 끝인 것 같습니다. 아직 미련을 다 떨쳐내지 못해서 나중에 대학다니면서 수능을 응시할 지도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글을 잘 못써서 정돈된 글을 쓰지 못했지만 정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 없는 저에게 위로가 되어준 것이 시대인제 갤러리였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 작자 미상, 「사수의 끝. 정들었던 시대결을 떠나며」 -

11.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의 경험을 시간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하며 심정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구어체와 평어체를 혼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③ 타인과의 대화를 상세히 기록하여 내적인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수험 생활의 고단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말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자신의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12.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지 못해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하였다.
- ② 자신을 끝없이 다그쳤고 그 덕분에 결과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 ③ 20대 초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있다.
- ④ 과거와 달리 주변 사람에게 감사를 느끼며 이를 글 속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미련을 떨쳐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아직 이를 완벽하게 버리지 못하였다.

1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기에는 ㉣과 달리 화자는 부모님에게도 자신의 선택을 알리지 않았다.
- ② ㉣과 달리 ㉠시기에는 화자는 남들과 벌어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 ③ ㉢시기에는 ㉠과 달리 화자는 의대에 지망하기 위해 수능을 준비하였다.
- ④ ㉠시기와 ㉢시기 모두 화자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매질을 하며 공부하였다.
- ⑤ ㉠~㉢시기 모두 화자는 학원에 다니며 공부하였다.

14. <보기>는 서울대학교 합격 수기 중 일부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한 적은 없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인내하면서 살아본 적도 없었다. 그 시간은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고 지나가는 중 만나는 사소한 모든 의미들은 그 순간에 맞닿은 나에게서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남모르게 혼자 삭혀야 했던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은, 그 지나간 시간들은. 이제 재수생의 비참한 현실로 각인되는 기억이 아닌 내 꿈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던 추억으로 남겨진다.

“아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있거라.”

- ① 윗글의 화자는 비록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그 과정은 젊은 시기에 대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겠군.
- ② 윗글의 화자는 <보기>와 달리 결국 목표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보기>와 비슷하게 긴 인내의 시간을 견뎠겠군.
- ③ 윗글의 화자가 수능에서 결국 실패하고 홀로 삭힌 시간은 이후 엄마같이 대해준 “선생님”의 고마움을 깨닫게 하였겠군.
- ④ 윗글의 화자는 결국 <보기>와 달리 끝까지 자신의 과거를 뛰어넘어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였군.
- ⑤ 윗글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비참하게 인내하고만 있어야 했던 시간을 살았겠군.

[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 집에 누워서 배 뻥뻥 끊으면서 오르비 보는데 느닷없이 문자가 왔길래 보니까 성균관대 합격확인ㅋㅋㅋ 바로 헬레벨릭 사이트 들어가서 손 덜덜 떨리는거 기백으로 부여잡고 수험번호 치고 들어가니까 최초합ㅋㅋㅋ

바로 ㉠엄마한테 전화하니깐 안믿으면서 몰카 하지 말라함ㅋㅋㅋ 어렵도없지 바로 합격증 캡처사진 전송! 엄마 바로 오 열하더라

듣기싫어서 전화 끊어버리고 ㉡아빠한테 전화 아빠왈 잘됐네... 말로는 그러지만 속은 안그렇죠? 바로 싱글벙글 집에와서 하는말 오늘 일하는데 일이 손에 안잡혔다ㅋㅋㅋㅋㅋ

합격증 바로 프린트해서 이름이랑 수험번호 가리고 대문에 붙여둬ㅋㅋ 그리고 엿보기 구멍으로 사람들 반응 보는데 합격증 보고 다리에 힘풀려서 주저앉는데 이해되더라ㅋㅋㅋ

그리고 ㉢할배 불러서 합격했다 하니깐 놀래서 틀니 떨구고 자빠짐ㅋㅋ 순간 할배 돌아가신줄?ㅋㅋㅋ 어렵도없지 백살까지 살아야하는데 아 아니지 지금 98세니까 200살까진 살아야함ㅋ

㉣친척들 축하한다 전화하는데 어렵도없지ㅋㅋ 설날에 수급 들어간다고 돈 많이 벌어드라고함ㅋㅋ 성의(성균관대 의대 아님ㅋ)를 보여야지 어딜 말로만

기빠서 3달만에 밖에 나왔는데 산책로에서 이제 뛰지않는다는 양반이니까ㅋㅋ
- 조조, 「성균관대학교 합격하니깐 반응 좋더라」 -

(나)

㉠독서실 내 앞에 새끼 쳐 운다 지금 ㅋㅋㅋㅋㅋ 딱보니까 n수생인거 같은데 평소에 공부 좆도 안하더니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루종일 디시랑 유튜브만 몇 시간 켜 보더니 갑자기 정신차린척하면서 무슨 동기부여 영상 같은거 쳐보다가 훌쩍거리다 병신새끼ㅋㅋ 아 존나 시끄럽네 저지랄하더니 또 정신 못 차리고 디시에 이딴 글이나 쓰고 있네 ㅠ ㅠ

- 132, 「독서실 내 앞에 새끼 쳐운다 지금」 -

15.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들뜬 감정을 보여 준다.
- ② 행위의 실행을 가정하여 긍정적 전망을 제시한다.
- ③ 의문의 표현을 사용하여 엄마의 기쁜 심정을 보여 준다.
- ④ 전후 상황을 대비하여 극적인 효과를 드러낸다.
- ⑤ 과장된 표현을 통해 이전과 달라진 마음을 보여 준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을 언급하는 화자의 연락에 놀란 인물이다.
- ② ㉡은 ㉡을 언급하는 화자에게 보인 반응과 달리 화자의 성공을 축하하는 인물이다.
- ③ ㉢은 ㉢과 달리 화자에게 격한 반응을 보이는 인물이다.
- ④ ㉣은 화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임과 동시에 화자의 기대를 복돋아 주는 인물이다.
- ⑤ ㉣은 ㉠~㉣과 달리, 화자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인물이다.

17.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12년의 길고 길었던 교육과정은 이제 마무리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등교하고, 점수에 의해 등급으로 줄 세워지며, 싫어도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모든 순응으로부터 여러분은 곧 해방될 것입니다. 먼저 성인이 된 우리들은 행복이 성적 순이 아니며, 인생의 가치가 대학 순위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저 10대 청소년 개인의 가치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수능이 곧 끝납니다. 우린 당신이 '제대로 찍길' 바랍니다. 그것은 정답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린 당신이 '제대로 불길' 바랍니다. 대학에 붙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초대로 세상과 제대로 한판 불길 바랍니다. 수능이 곧 끝납니다. 이제 세상에 '불응'할 수 있는 성인이 된 수험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① (가)의 화자는 <보기>의 입장에서 세상에 불응하는 존재겠군.
- ② (가)의 화자는 <보기>의 “성인”과 달리 의무적으로 해야했던 모든 순응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존재이군.
- ③ (가)의 화자가 산책로에서 보인 반응은 시스템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겠군.
- ④ (나)의 화자가 독서실에서 우는 이유는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모든 순응에 대한 중압감과 이에 불응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한심함 때문이겠군.
- ⑤ (나)의 화자는 (가)의 화자와 달리 <보기>의 “성인”에 해당 하는 존재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